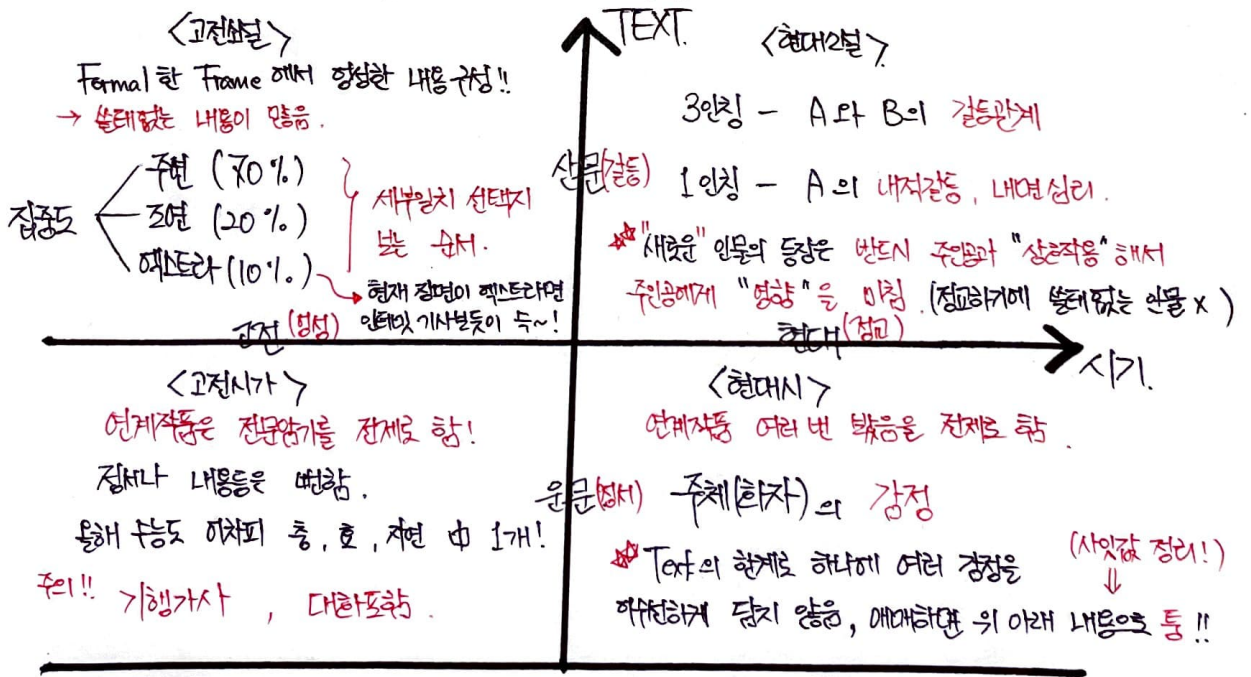


# <문학> 큰 특징

1. <보기>의 뜻을 항상 생각한다. (알려준대로만 읽는다는 mind)
2. 적절한 건 매우 적절해야 하고, 적절하지 않은 건 아주 적절하지 않아야 한다. (애매한 건 제각각은 mind)
3. 선택지는 1번부터가 아닌, 역대 거들에서 답이 될 확률이 높은 단어부터 확인한다. (만약 애매한 선택지 2개 중 고민이 된다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적는다는 mind)
4. 문법은 거의 걱정이다. (다른 건 몰라도 "감정" 만큼은 놓치지 않게끔 한다는 mind)
5. 장도 ≪ 위. ('이 정도면... 맞나...?' ← 글을 잘못 들었다, 빨리 빠져나가기 !!)
6. 정말, 너무, 확실히, 아주, 매우, 많이 ~ ~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한마디만 맞는지 ~ ~' 라는 rough 한 판단! (2번, 4번과 같이 받아들이기 !!)

<여기 읽을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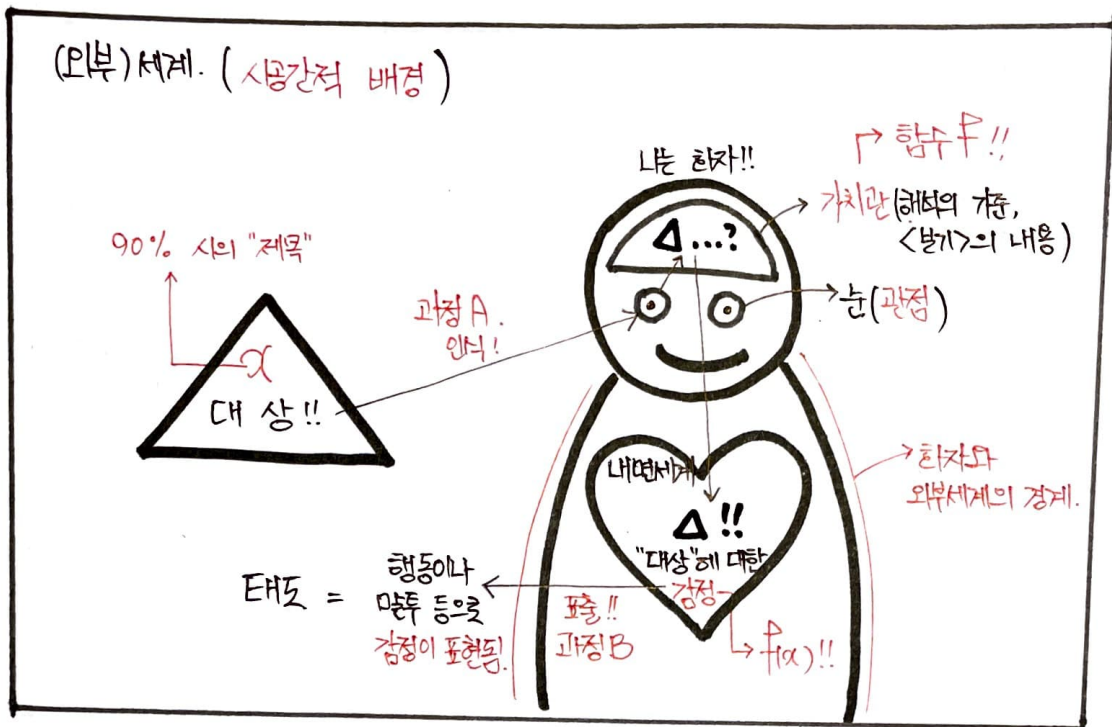
## 갈래별 세부 특징 ( ) 즉 내용 위주 강상



- <극 / 무필 / 시나리오> Main Theme 이 아닌 만큼 이렇게 출제 X (개념적 이해를 받고...)
- 출제목적에 뚜렷한 장르임!  
First 는 감성!!
- 무필: Event (object) 에 대한 필사적 생각 (감정 느낌!) ⇒ 나쁘면 개꿀.
  - 극: 무대 공연 전제로 하기엔 관련 문항 반드시 출제. (해설자, 저시문 주의!)
  - 시나리오: 방영 전제로 하기엔 관련 문항 반드시 출제 (카메라 구도, 촬영)

# Frame. 저여진 각분에 이룸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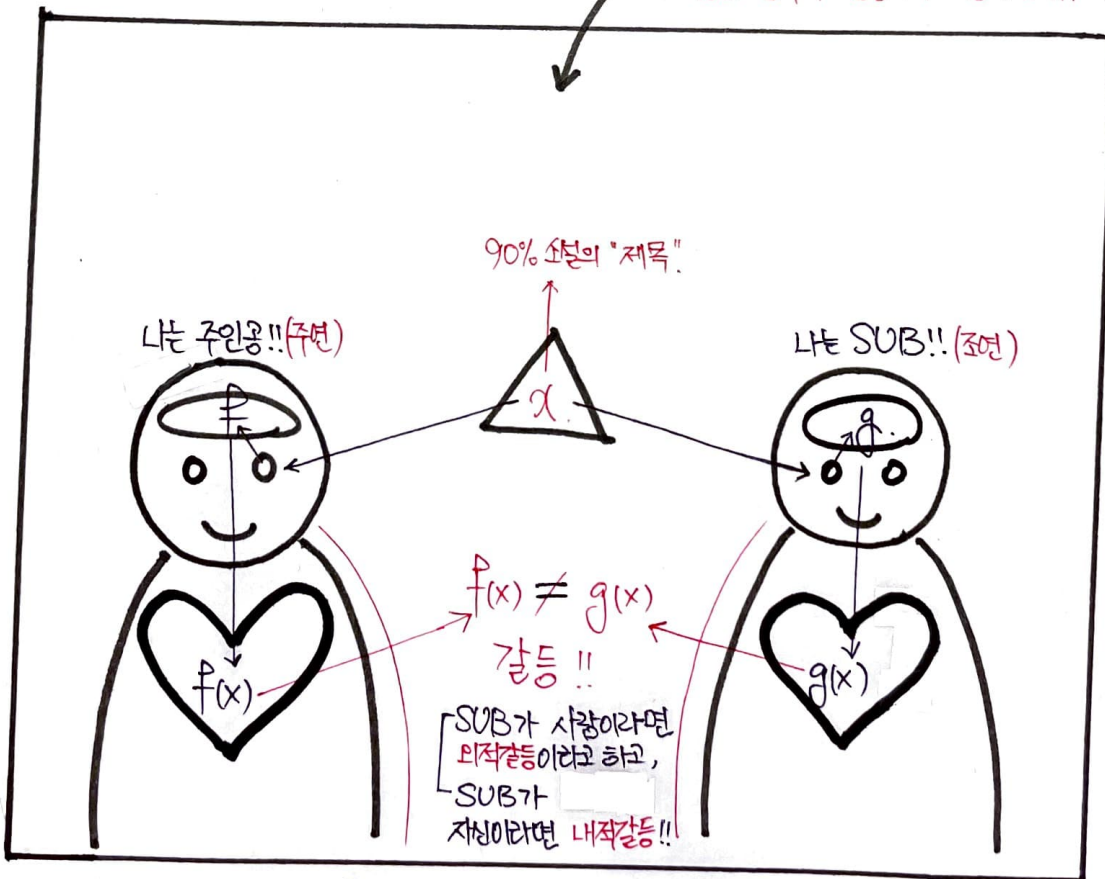
## <시>



과정 A + 과정 B = 한자 와 세계의 상호작용 (함수값  $f(x)$  도출 과정)

## <소셜>

이 작용을 문화의 별칭이라고 한다면 ... 인물을 추해받자!



서로 다른 기호판 ( $f, g$ ) 에 따른 서로 다른 감정 ( $f(x), g(x)$ ) 가 충돌할 때, 우리는 이를 같음이라고 한다!!



# 개념 PLUS 갈등 & 변화.

## <갈등>

전제: **충돌!!**

→ 같은 대상 (x)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 (f, g)을 가진 이들이  
다른 감정 (f(x), g(x))을 가지고 **충돌할 때**, 이를 "갈등" 이라고 함.

Case 1) A: 나는 사과가 좋아!!  
**갈등 X!** B: 나는 배가 맛있어!!  
(서로 다른 대상) **상황생: 어저러고...**

\* Case 2) A: 나는 사과가 좋아!!  
**갈등 X!!** B: 나는 사과가 싫은데...  
(충돌 X!) **상황생: 아니, 어저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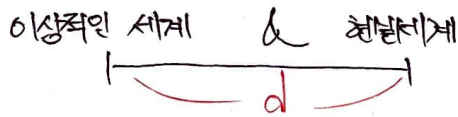
Case 3) A: 나는 사과가 좋아!  
**갈등 0!!** B: 나는 사과가 싫은데...  
A → B: 사과는 아래이래서 좋대니까!!  
B → A: 사과가 아래아래서 싫대고!!  
**상황생: 오오!! "들이" 갈등한다!**

⇒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외적갈등의 Form!!

주의할 경우 1) 외부세계와의 **충돌**. ← 최인훈 「광장」

\* 가치관의 역할: 외부 대상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세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



If)  $d \uparrow \uparrow$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라고 표현함.

(만약  $d=0$  이면요?? 그런 마냥 행복하기만한 소릴 쓰지도, 울지지도 않으니 걱정 X!)

Solution) 내가 현실을 바꾸든가, ↳ 고전시가 예미!!  
(일부 강정기 때 쓰인 시!)

OR 내 이상을 **낮추든가!** OR 계속 **unsolved**인 채로 살든가!!  
= 타협 이라고 함. ⇒ 괴리의 심화! (이 결말이 최인훈 「광장」)

주의할 경우 2) 내적갈등

한 인물에게 여러 가치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존재가 외부세계에 기입할 때,  
⇒ 각각의 가치관에 대한 각각의 감정들이 이를 **아노**라고 표현함)

한 인물의 마음 속에서 **요동치게** 됨. (대부분의 현대시)  
**고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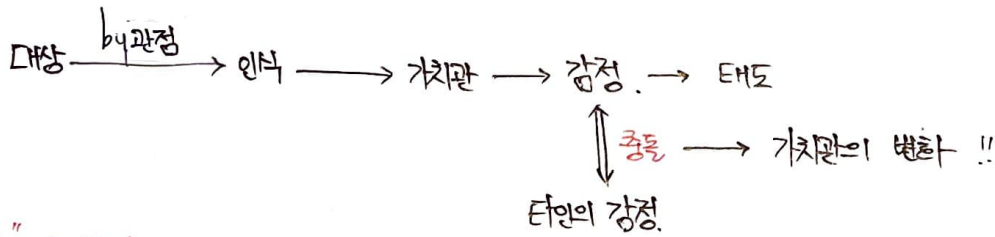
결과) f, g   
 f 갈등 끝에 한 쪽의 가치관을 굳히는 경우: 매우 드물다. 권문 「한겨울팔곡」  
 h 잘 조화해서 원활하게 타협: 아직까지 불 적 이 없다.  
 f, g 계속 존재하는 경우: **고뇌 심화** (강정기 때 현대시들) 양귀자 「한겨울」

# <변화> ⇒ 제일 중요한 부분!! (문제 풀 때)

각각의 요건과 과정을 다시 정리해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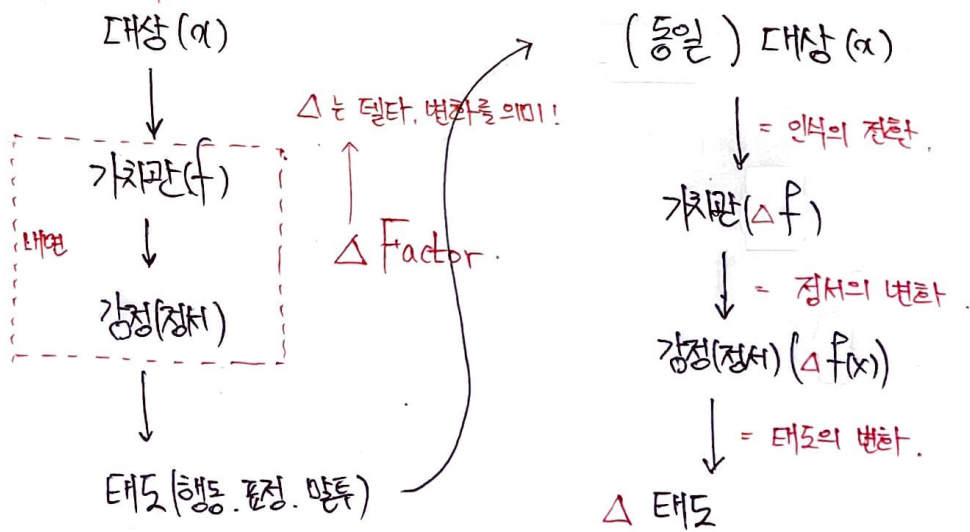
- 외부세계 : 인물의 가치관을 형성해줌 (인물의 주의 초점값을 세팅해줌.)
- 가치관(f) : 인물마다 가치 고유한 (인식 즉) 판단의 기준 ] 주요 <보기>에서 제시!!
- 대상( $\alpha$ ) : 인물이 인식하는 것 (반드시 유형일 필요는 없음. 과거 사건 등 유형도 포함하는 개념)
- 감정(f(x)) : 대상( $\alpha$ )을 가치관(f)를 통해 바라본 결과값.
- 태도 :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 ⇒ 행동, 표정, 말투 등으로 드러남.

## <과정 요약>



## "변화"의 과정!!

→ 외부세계에 실존하는 것을 잘 안 변화.



-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만 바뀐다거나, (아무것도 없이) 태도만 들변하는 것은 힘들다!! (가끔 그런 이상한 인물이 등장해도 90% focus 할 필요 X!! 예외는 뒤에 ~)

Δ Factor (변화요인) = 상황에서 읽어야 할, 구무할 부분!! (100% 출제)

- 특히, 문단 도입부 or (중략) 직후
- 1. 시공간의 변화 !!
  - 2. 새로운 인물의 등장!!
- ⇒ 이로 인해 타자(주인공)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200% 출제 !!)

# <문제풀이 전략>

공통 시간단축 (전부 같은 메커니즘)

1.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문항 (주로 적절한 걸름 나옴)

해당 표현이 쓰였는지부터 전부 확인

IF 표현이 맞는지 맞다면? 2개 보아야 2개 정도. 추론되는 감상이 너무 아귀나 읽을 것임.

+ 적당히 많은 것을 고를 문제일 수 있음.

서술자부터 읽음! 이후 내용은 쉽게 처리 가능.

2. 세부일치 문항. (사건, 장면의 detail을 묻는 문항) (주로 적절하지 않은 걸름 나옴)

기본전략은 Fact 체크! (당당한 과정)

Fact 날진 : 구체. 객체 전환, 시간 선후관계 등 이렇게 나면 easy~!

거짓 내용 창조 : 짧은 내용 만들기 <=> 날미도↑, 시간 소모↑

→ 자세히 찾아도 안 나옴! 일단 Δ 치고, 1. 관련 장면 한 번만 더 보기  
2. 그래도 안 되면 일단 2개법!!

→ 대상, 시간 배경.

3. A, @: 대상, 에 대한 문항 (주로 적절한 걸름 나옴)

[ 22년도 6.9월 20번, 22년도 9월 23번, 20수능 33번, 19수능 44번, 21수능 24번 (대상. 사건)  
19수능 22번, 20수능 23번 (인물)  
19년도 9월 45번, 20수능 35번 (공간. 배경) ]

⇒ 선택지 보기 전에 서술형을 읽을 생각을 하고, 제일 맞는 선택지 한 개만 고르고 넘어가기.

→ 이때, 싱크로율 (내 서술형과 선택지의 서술) 을  
연습해서 높이는 것이 기출분석!!

(⇒ 후회는 다음 뒷 선택지 다 무효)

"내가 서술한 내용이 답이고, 그 보다 더 적절함도 이쁘게 서술할 수  
없으니 나머지 관심없어" 라는 mind 갖기!!)



# 장르별

작품성을 기준으로 통제하기 좋은 건 현대소설, 현대시 !!

## 고전

Q. 고전 현대시 2개, 현대소설 2개를 내지, 여권이 고전을 낼까??

A. 적어도 고전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묻자 함은 절대! 절대 아닐 것! (< 이렇다면 한국사에 넣겠지)

현대소설에서는 (현대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전만이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

Focus! ✨

- 1. 주제의식 (고통)
- 2. 비현실성 (공. 정적적 묘)
- 3. 변란 스토리
- 4. 유연성 (20년도 6평 31번 <참기> 참고!!) (이때, 잡자기, 차별, 차후, 어느 날 등)

5. 가끔 고전에서 찾기 힘든 것. (현대-문학의 기교)  
 여설, 시간의 역전 등 (99% 당 X)  
 (근거: 그런 기교를 쓸 정도로 당시 문해이별전 X, 설령 그런 작품이 있어도 해당 기교가 잘 반영된 현대소설을 한 편 더 내는 것만 못함.)

↓  
 Scene 1개의 기준.  
 (21년도 「최고의전」 <작업 30번 문항> 권해별기.)

## 수필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 (내면면 개꿀!)

(결다리통)

그냥 Text 추가해서 시간 쓰는 용

→ 단상 Fact 체크!! + 필자가 하고 싶은 말.  
 (21년도 정답만 봐도 충분!)

## 극 / 시나리오

통제 point 명확!

무대화. 영상화 하는 문항 100% 통제.

제일 우선은 강령일치여부와 Fact 체크!

But 난이도가 올라가면 무대화, 영상화에 대해 직접 묻기도 함.

17년도 → 무대화: 무대 안 & 밖 (관객이러 생각!! 밖은 볼 수 없다!) 장면 전환, 지시문, 조명 (배경을 판단)

19년도 → 영상화: 카메라 구도, 가까이 vs 멀리. 영상기법 (반드시 꼭 봐!!)

19년도 9월

# <보기> 문제

- <보기>

  1. 내용 요약형 (시<sup>1</sup>)
  2. 나열형 (시<sup>2</sup>)
  3. 작품 외적 감상<sup>3</sup> (옛날에 가끔 나옴)
  4. 이백 보기<sup>4</sup> (이론 제시형, 타 작품 제시형)

\*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X (List 작성했으니 빈 그럭그럭 할 정도만 !!)

## 적정하지 않아지는 방법...

지문 Fact 체크는 기본 !! (자문어항 다른 말들 하면 판단할 가치 X)

1st

Fact 여부 따지기 (대부분 지문 Fact 뿐 따지는데, <보기> Fact 가 더 빠르고 쉬움)

지문 F /<보기> F	○	X
○	Scene match	우리가 다 아는 Fact 체크!
X	제일 easy~!! (사실은 도배됨)	음... 이런 발레같은 선택지가 나올 리가 없겠소??

2nd

갈래별을 나가기

시 : (주) 요약형, <보기> Fact 요구가 많음. (자문이 너무 짧아서, 지문 Fact는 너무 쉬워짐)

시 : (주) 나열형, 지문 Fact 요구가 많음. (A를 not A 라고 하는 건 너무 쉬워서 안 x, 지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경우 주의 !!)

- ↳ 1. 지문에 진짜 없지 한 번 정도만 확인
- 2. 짐 볼만하면 나머지 선택지 소개법 (찾아도 안 내다가 여기서 왔다면 안됨 !!)



<보기> 라 지문의 Fact 가 모두 맞는 경우 !! ⇒ 제일 짜증나는 유형. (가끔 시비에 등장)

출제되는 순간 이러 시형 난이도 하봉 (사실 감아먹음) ⇒ 후에 뒤에 영향 큼 !!

Ex) 22년도 9월 21번 (Easy 하게 나왔지만 음 때 하려치질 수 있으니, 21승 25번 <sup>★</sup> 답 도출과정 "반대 3번 이상 도박화하고 체크하기")

EBS 레벨 요약 : 해당 지문의 뻘은 (Fact) 해당 <보기> (Fact) 라 관련이 없다. 찾아볼 수 없다.

2020학년도 6월 / 9월 <보기> 문항.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 21. **황정원** 「우사와 야사」 ㉔

나열 <보기> ⇒ 답의 근거: 지문 F. ㉔ <보기> F ㉔ scene match X

(내 풀이)

→ <보기>와 안맞는 내용 (판단이 애매하면 순서법)

5 Me → <보기>는 "상처를 느끼기도 하지만, ~" 읽어씹나 지문에 그런 내용 없음. Best!

27. **강창욱** 「회야곡」 ㉒

나열 <보기> ⇒ 답의 근거: 지문 F X (<보기> F ㉒)

10 Me → 처음부터 '우아'와 '은근'은 대비가 되지 않음.

31. 「채별강별곡」 ㉓

나열 <보기> ⇒ 답의 근거: 지문 F X (<보기> F ㉓)

15 Me → 장마가 끝났을 때는 아직 비가 내릴까봐 걱정이 많음 (읽는 거 만들지마!)

\*\*\* 34. **김기림** 「연륜」 ㉔ **작사가 많이 출항.**

선택지 자체 비문.

Me → 나한테 부족한 걸 글로써 이렇게 증명하지

< 공부할 사항 >

• 21번에서 왜 ㉔가 정답인지?

⇒ <보기>가 라한 내용을 (내려)읽기 때문. 소설 특성을 전체 소리 맞춰 보기.

20 그러나 <보기>가 지문에 있는 내용 Base로 설명할 필요는 X.

즉, <보기>는 전체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데, 지문은 하필 그 부분이 아닌 것!

25 (이때, "소설 지기 떠돌아 구경에 읽겠지만, 적어도 지은 지문이 없어~" 라는 mind)

• 34번에 오랜만에 "비문" 선택지가 등장함!!

→ 참고!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유취십이곡」 36번 <보기> 문항 ㉓

'백대' 행동하는 게으름, 게으름은 나의 '희열' 이 어떻게 양면적이지야??

30 그냥 수 읽다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함.

⇒ <보기>, 지문이란 상관없는 그냥 개소리.



20학년도 9월 평가원.

21. 「배비장전」 ㉔ <보기> 반드시 기필하기!!

나열 <보기> => 답의 근거: 지문 F O <보기> F O Scene match X

Me -> '아저씨 흥분' 물건 취급... (지문 F O) 관용배비인 사랑 증진을 꾀하는 건가?? (<보기> F O)  
 다른 Scene 인 것 같은데... 지문 선어랑 전혀 match 가 안 되는데...??

㉔ 번이 확실히 답이겠지만, 나머지 선택지도 한 번씩 확인해두자!

24. 「갯마을」 ㉕

요약 <보기> => 답의 근거: <보기> F X

Me -> "시련을 극복하길 의지와 희망을 형성화" -> 자신의 희망 실현의 실현...? X!!  
 <보기> 선택지.

31.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㉓

요약 <보기> => 답의 근거: <보기> F X

Me -> "시가 노래를 되찾고, 라임의 상처 권위를 방자하기 위해 이야기로 끌어 ~" <보기>

-> 상처가 노래이 쉽게 덧남 = 시에 노래가 붙어있...? X!! 선택지

(시에 노래가 있을 때 형제가 상처 권위잖아?! \* 덧나다: 병이나 상처 다루는 잘못 다루어 더 나빠진다.)

34. 최남철 「유리가」 ㉒

요약 <보기> => 답의 근거: <보기> F X

Me -> "허차가 외부 단절된 채" -> 허차가 외부와의 교류를 거부...?  
 <보기> 선택지

<중요한 지점>

- 6개월마다 출현 > 3년마다 아유: <보기> F 가 확실히 많다. (자문을 읽지 않아도 해명가능)
- 2번 <보기>의 내용 & 형태 기억: 대충 "변화"에 Focus 하라구름. (상지어, 명사원 최초 <보기>에 의문문이 들어갔다는 점)

<보기>에 등장한 변화는 앞에 있는 개념 PLUS 에 적용해버라!!

대상 (존재) -> 배비장 가치만 (안해도됨!) -> 서로 다른 대역로 충돌!!  
 자유의 가치만 (해야함!)

ΔFactor = 새로운 인문 (계급, 노인) -> 변화 -> 배비장의 대상(존재)에 대한 가치만, 태도 등이 변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태우고, 반드시 "중세화"라고 !!

# 주요 단어

작성하지 않은 선택지 고를 때 !!

⇒ 선택지 중 해당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부터 해결!  
해결 메커니즘도 제책됩니다.

## 1. 강등 (대답 구도) & 해소.

→ 강등 관계 파악. 인물부터 파악! <17수능 외번> <19수능 24번>

→ 낮은 강등 만들지말고, 열정한 강등 해소하자! ← 문장 꼭 기억! <17수능 32번>  
<20수능 36번>

## 2. 감정 똥가 아는 내용!

→ 문항은 결국 감정 !! 선택지가 다른 감정을 말하고 있으면 어느 구절을, 어느 위치를  
찾다 붙여도 맞은 말될 수 있다! <19수능 34번>

## \* 3. 변화류 선택지 (시간의 변화 =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 = 공간의 이동)

→ 적절한 걸 변화로 낼 거면 일정 조화한 변화 해야 함. <22/6평 20번>

⇒ 적절한 "변화"를 물어보고, 이 정도면 변화인가...? 하는 생똥개 질문!!

↳ 물고 싶다면 범위를 한정해서 Fact-기류 물어볼 것임 <19수능 22번, 26번>

→ 작성하지 않은 걸 문항 때, 변화도 않은 걸 변화라고 표현 하는 경우 많음. <18수능 외번>

## 4. 벗어나, 비로소 오늘 Trend

벗어나 : 틀린다는 문항에 수로 내용 (안 벗어나는 학을 머지금) <14/9평 39번>

비로소 : \* 어느 한 시점 기준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 이루어짐

↳ 앞에서 이미 이루어졌을 학을 머지금! <13/6평 16번>

<17수능 29번>

↳ 리복, 재회 (기대, 확신 같은 말 들어가면 작성하지 않을 확률 ↑)

## \* 6. 동일 vs 유사, 상반 ⇒ 사물마냥 우려먹음.

상반 ⇒ 아거 서로 (완전히) "다른" 것과 반대 개념!! "상반" = 서로 "반대"임 (A & not A)

고민할 때! { 동일 : 이 정도면 동일한가...? = 동일하지 않다는 뜻! (완전 same 이면 고민할라 x! 중요달라서 고민하게 됨)  
유사 : 이 정도면 유사한가...? = 유사하다는 뜻!! ↳ 아거 동일하지 않다는 것임.

(완전 different 한 걸로 고민할라 x! 사과와 저등차는 유사한가...? 이런 고민 아무도 안해!

중요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으니까 고민하게 됨!)

↳ 이게 유사하다는 뜻임. <12수능 35번>